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 대상

이현주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Effects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for group with Low Resilience

Hyun-Ju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in Jungw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three sub-factors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 out among a group of university students, with low resilience, majored in public health.

Methods: The survey was made during January 1 to 13, 2017 and after checking the resilience scores of 166 respondents and the questionnaires of 115 respondents, whose scores were less than 195, an average score of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AMOS.

Results: The average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scores were 173 and 2.96, respectively. The goodness-of-fit of proposed model showed RMSEA=0.068, GFI=0.916, NFI=0.901, IFI=0.963, CFI=0.962 so, final measurement model was selected. The analysis of the suggested model showed that among three sub-factors of resilience, only self-control ab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academic burnout and two others were shown to have no effects.

Conclusion: By researching and introducing a education method that could enhance self-control ability, it would effectively reduce academic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with low resilience and majored in public health.

Key words: Academic burnout, Health education, Public health, Resilience, University students

접수일 : 2019년 01월 23일, 수정일 : 2019년 02월 21일, 채택일 : 2019년 03월 06일

교신저자 : 이현주(28024,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Tel : 043-830-8858, FAX : 043-830-8679, E-mail : hyun525h@jw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과는 보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료정보행정학과 등 학과 명칭은 다양하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⁸⁾ 국가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등,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보건학 전공 학과는 대학 입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합격률은 2013년 69.3%, 2014년 40.2%, 2015년 41.4%, 2016년 44.6%, 2017년 26.5%, 2018년 31.1%로 90% 이상인 다른 직종의 국가시험 합격률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9). 그 결과 보건학 전공 대학생들의 재학 중 학업 요구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도한 학업 요구 시 학업소진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보건학 전공 대학생은 학업 요구량 증가로 인해 학업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유지혜와 채수진, 2016).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가 요구되는 집단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신보건교육 측면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회복탄력성 향상 방안이 우선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한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소덕순과 문영희, 2011; 전인희와 조주연, 2016).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사람마다 이에 대한 반응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 극복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회복탄력성에 기인한 것으로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며, 어려움에서 적응 상태로 돌아온다는 '회복'과 역경을 딛고 성장한다는 의미의 '탄력성'을 합친 용어이다(김주환, 2011; 임동

훈, 2018).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어 학교생활 적응, 조직몰입도, 스트레스 등과 연계하여 회복탄력성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김민수 등, 2017; 백유성 등, 2017; 윤애란, 2018). 회복탄력성의 크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충동을 통제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해,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하므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호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인 '긍정성'은 긍정적 정서로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는데 기초가 되며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삶에 대한 감사하기가 해당된다(김주환, 2011).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모여 회복탄력성을 이루며 회복탄력성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추병완, 2015; 백유성 등, 2017; 윤애란, 2018).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 스트레스, 무력감 등의 태도를 보이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이다(고홍월, 2012). 고등학생은 주로 보호자와 선생님의 주도하에서 공부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반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독립을 위한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준 성인기에 접어들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주로 혼자서 학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개인에 의한 학업소진의 가능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1985년부터 실시된 '의무기록사' 면허의 개정된 용어임. 2017년 12월 19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2월 20일부터 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성이 높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 행태에 대하여 고등학생 시기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직장인에 대해서는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었던 반면(한선영, 2015; 류경과 김종경, 2016; 이주연 등, 2016), 학생 대상의 연구는 주로 고등학생 이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의대생, 간호대생, 사회복지학 전공생 등 힘든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는 직종의 전공학과 대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편으로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을 별도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양승경과 정미라, 2016; 유지혜와 채수진, 2016; 손강숙과 정소미, 2017; 안민정 등, 2017; 성진숙과 최현주, 2018; 이정원과 김동민, 2018; 임동훈, 2018). 한편, 한 연구에서 학업소진과 회복탄력성 간에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단변량 분석은 일부 이루어졌으나(Liuhua Ying 등, 2016; 배은경 등, 2017) 보건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변량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다(이현주,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학업소진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단변량인 상관성 분석을 시행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AMOS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중 우리나라 평균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소 각각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복탄력성이 낮은 보건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업소진 현황 및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현황을 파악한다.

2)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소와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3)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의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충청북도 소재 4년제 2개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였으며 총 177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응답자 중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에 대한 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빠져서 분석이 제한되는 10건을 제외한 166명의 회복탄력성 점수를 1차로 확인한 다음 이 중 총점이 한국인 평균인 195점(김주환, 2011)에 미치지 못하는 115명에 대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 상 한국인 대학생의 대표성을 띠는 평균 점수 확인이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인 평균 점수는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 개발을 통해 검증된 점수이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가설은 <Figure 1>과 같다.

1) 회복탄력성 세부항목 중 자기조절능력은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회복탄력성 세부항목 중 대인관계능력은 학업

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회복탄력성 세부항목 중 긍정성은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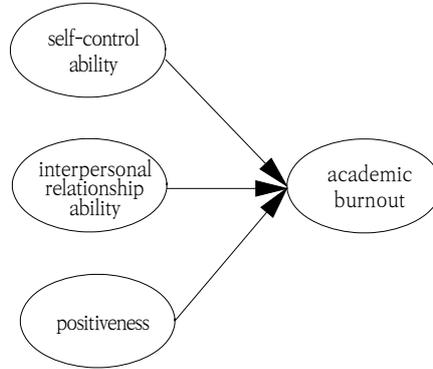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도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학년을 포함하였다.

2)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며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 중 하나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차례 조사를 반복하여 도출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 중 자기조절능력에 해당하는 5점 척도 총 18문항을 채택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0.982이며 자기조절능력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KRQ-53 문항 중 대인관계능력에 해당하

는 5점 척도 총 18문항을 채택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803이며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김주환, 2011).

4) 긍정성

긍정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켜주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능력이다. KRQ-53 문항 중 긍정성에 해당하는 5점 척도 총 17문항을 채택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608이며 긍정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김주환, 2011).

5) 학업소진

학업소진이란,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피로감, 정신적 소모감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이다(고홍월, 2012). 학업소진에 대한 설문 문항은 이수현과 이동엽(2013)이 사용한 5점 척도 총 14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663이며 학업소진이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3. 통계 분석

PASW Statistics Ver.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및 학업소진 값은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MSEA), 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중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여 가설을 증명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점수 분포

연구대상인 보건학 전공 대학생 115명의 회복탄력성 점수를 산점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평균 173점, 최고 194점, 최저 134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의 90% 가량이 150점에서 19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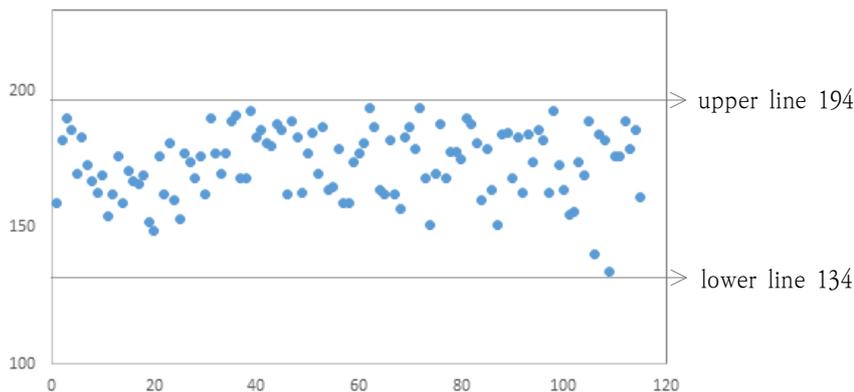


Figure 2. Score distribution of resilience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및 학업소진

연구대상 대학생 중 남학생은 전체의 26.1%, 여학생은 73.9%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9.6%, 2학년 32.2%, 3학년 20.0%, 4학년 18.2%였다.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항목 중 자기조절능력은 5점 만점에 3.17점, 대인관계능력 3.42점, 긍정성은 3.23

점으로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다. 학업소진은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능력 0.06점, 긍정성 0.70점, 학업소진이 0.05점 높은 반면 대인관계능력은 남학생보다 0.03점 낮았다. 그러나 이들 4가지 변수 모두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년별로도 유의한 점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Resilience, academic burnout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N(%)	resilience						academic burnout		
		self-control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ositiveness		Mean±S.D	f/t-value	
		Mean±S.D	f/t-value	Mean±S.D	f/t-value	Mean±S.D	f/t-value			
sex	male	30(26.1)	3.12±0.285	-0.899	3.44±0.333	0.555	3.18±0.295	-1.006	2.83±0.382	-0.645
	female	85(73.9)	3.18±0.333		3.41±0.317		3.88±0.361		2.88±0.361	
grade	1	34(29.6)	3.11±0.287	1.325	3.44±0.333	0.417	3.18±0.392	1.872	2.80±0.362	0.534
	2	37(32.2)	3.23±0.306		3.37±0.310		3.21±0.340		2.89±0.369	
	3	23(20.0)	3.21±0.392		3.42±0.353		3.20±0.374		2.89±0.289	
	4	21(18.2)	3.11±0.305		3.45±0.294		3.40±0.270		2.89±0.289	
total	115(100.0)	3.17±0.321	-	3.42±0.320	-	3.23±0.356	-	2.86±0.366	-	

3. 탐색적 요인분석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인 자기조절능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긍정성 17문항과 학업소진 14문항 각각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결과에서 부적합한 요인적재 값을 보이

는 항목을 제외한 다음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0.6 이상이면 수용가능하다는 송지준(2009)의 기준에 부합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Table 2).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The number of questions to analyze(N)		Chronbach's α	
	before analysis	after analysis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18	2	0.7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8	3	0.803
	positiveness	17	3	0.608
academic burnout	14	3	0.663	

4. 확증적 요인분석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요인에 대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Table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4가지 변수

모두에서 $p>0.05$ 에 부합하였고 RMSEA는 0.1 이하로 0.05 이하면 좋고 0.05-0.1 이하면 수용 가능하다는 기준(송지준, 2009; 신건권, 2013)에 부합하였으며 GFI, NFI, IFI, CFI는 모두 0.9 이상으로 해당 구조의 적합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값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Goodness-of-fit index

Variable		χ^2 (df)	RMSEA	GFI	NFI	IFI	CFI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6.623 (1)	0.053	0.977	0.933	0.983	0.98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346 (2)	0.000	0.994	0.991	1.004	1.000
	positiveness	3.613 (2)	0.084	0.985	0.983	0.992	0.992
academic burnout		1.068 (2)	0.000	0.995	0.993	1.006	1.000

상관계수의 제곱 값인 0.309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의 AVE 값 0.616 보다 크지 않아 측정모델의 판별

타당성을 충족하였으므로 각 변수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Table 4).

〈Table 4〉 Corelation analysis of each factor

Variabl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1	2	3	4
resilience	1. self-control ability	1.00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0.361** (.048)	1.00	
	3. positiveness	-0.209 (0.048)	-0.046 (0.047)	1.00
4. academic burnout	-0.556*** (0.066)	-0.229* (0.049)	-0.047 (0.051)	1.000
construct reliability	0.756	0.888	0.889	0.862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0.616	0.731	0.734	0.680

*** p<0.001, ** p<0.01, * p<0.05

확증적 요인에 대한 모수 측정 결과 첫 분석 단계에서 적합도가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수준임이 확인되어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최종모델을 이용하여 〈Table 5〉 및 〈Figure 3〉과 같이 가설을 최종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는 계수 값 -0.718, 검증 통계량 C.R.이

-4.095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자기조절능력이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이 채택되었다(p<0.001). 그 외 대인관계능력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및 긍정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인관계능력이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 및 긍정성이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각각 기각되었다.

〈Table 5〉 Result of parameter estimat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hypothesis)	Coefficient	C.R.	p-value
self-control ability → academic burnout	-0.718	-4.095	0.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academic burnout	0.011	0.087	0.931
positiveness → academic burnout	-0.168	-1.709	0.087
Goodness-of-fit of proposed model	$\chi^2=58.218$, $df=38$, $p=0.019$, $RMSEA=0.068$, $GFI=0.916$, $NFI=0.901$, $IFI=0.963$, $CFI=0.962$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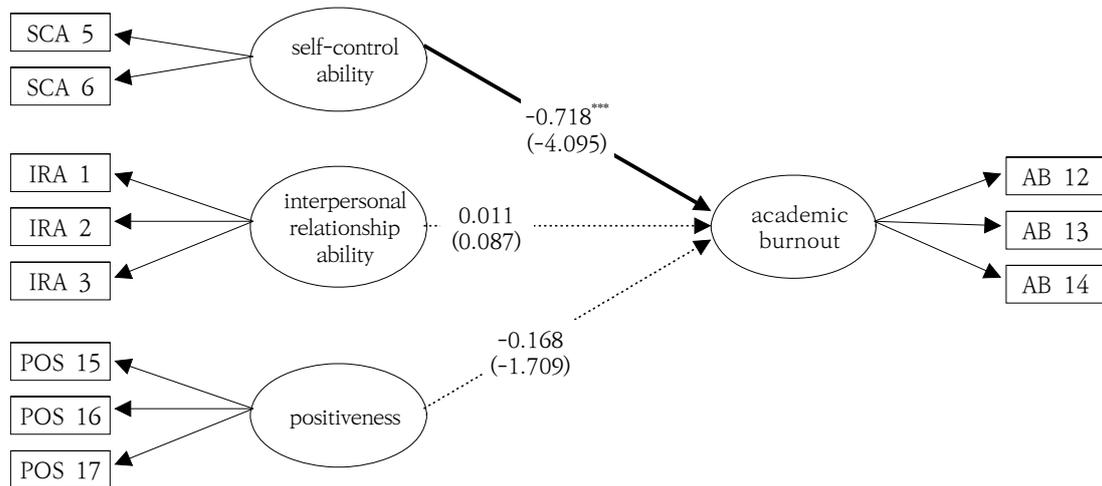


Figure 3. Proposed model analysis

IV. 논의

한국인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265점 만점에 195점이다(김주환, 2011). 한국인 평균보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본 연구대상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173점으로 한국인 평균보다 22점이 낮았다. 학업소진은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특정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조사하였을 뿐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전공

대학생 중 회복탄력성 점수가 낮은 군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없어 선행 연구와 점수만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탐색적 요인분석, 확증적 요인분석을 거친 결과 $RMSEA=0.068$, $GFI=0.916$, $NFI=0.901$, $IFI=0.963$, $CFI=0.962$ 를 보여 적합도가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수준임이 확인되어 측정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평가를 통해 신

권(2013)의 기준에 따라 한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반면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과 학업소진의 총 4개 변수 간 상호 독립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학업소진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 3가지 모두와 소진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류경과 김종경, 2016)와는 일부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의 소진은 학업에 대한 소진이 아니라 단순 소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학업소진과의 비교는 제한적이며 학업소진을 다루긴 했지만 총 회복탄력성과의 음의 상관성을 확인한 선행연구(이한준, 2014; Liuhua Ying 등, 2016; 배은경 등, 2017; 임동훈, 2018)와도 비교가 제한적이므로 향후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제안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만이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고 그 외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변량 분석을 한 사례가 없어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제한되지만 '자기조절능력'만이 학업소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자기조절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같은 환경 하에서도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김주환(2011)에 따르면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예상치 못한 호의적 행동 등을 통한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자율성 강화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지'라는 비개인화하는 노력, '괜찮아. 이번에만 실패한 것일 뿐이야' 같은 일시성을 지향하려는 노력 및 '이번에만 결과가 안 좋았을 뿐 다른 일들은 다 잘하고 있잖아' 같이 특수성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

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강의 시에도 위와 같이 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특화된 강의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수들에 대해 관련 교수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회복탄력성 강화에 특화된 별도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으므로(김혜진, 2018)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들 회복탄력성이 낮은 보건학 전공 대학생 군에 특화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 정서적 측면과 회복탄력성이 관련이 있으므로(이주연 등, 2016; 전인희와 조주현, 2016) 보건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공감능력이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란(2019)의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이들 학생에게 공감을 표하는 진행방식을 적극 포함한다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아진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2개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점수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평균인 195점보다 낮은 115명을 선별한 다음 이들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의 회복탄력성 세부 요인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심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학업 요구도가 높아 학업소진의 우려가 큰 보건학 전공 대학생 대상의 학업소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 중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조절능력'임을 특정해 내어 이들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의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개 지역의 대학생 115명 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점, 보건학 전공 대학생 중 회복탄력성이 높은 군과의 학업소진 영향요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및 선행연구가 없어 회복탄력성이 낮은 타 전공 대학생 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이므로 향후에는 대상을 확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보건학 전공 대학생에게 타당하도록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측정 도구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동일 전공자 군집 간, 타 전공 대학생 간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및 공통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법률 제 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D%98%EB%A3%8C%EA%B8%B0%EC%82%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2.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한국HRM협회.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 패키지. 서울: 고용노동부 등.
3. 고흥월. (2012). 대학생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3(1), 125-147.
4. 기경희, 김광수. (2018).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7(2), 157-175.
5.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6. 김혜진. (2018).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의 중학교 자유학기 적용 사례연구. 윤리교육연구. 49, 91-119.
7. 류경, 김종경. (2016).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소진, 조직몰입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439-450.
8. 배은경, 김성완, 김정화. (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63-89.
9. 성진숙, 최현주. (2018). 교사 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다층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5(1), 27-50.
10. 소덕순, 문영희. (2011). 사회복지전공 대학生の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교육. 16, 48-69.
11. 손강숙, 정소미. (2017). 의과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177-196.
12.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13. 신진권. (2013).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14. 안민정 외 7명. (2017).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연구: 학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2), 113-123.
15. 양승경, 정미라. (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 직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613-629.
16. 유지혜, 채수진. (2016). 일개 의과대학생의 완벽주의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1(1), 88-95.
17. 이수현, 이동엽. (2013). 학업소진척도(MBI-S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1(2), 165-187.
18. 이주연 외 6명. (2016). 정서 공감과 회복탄력성이 상담교사들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

- 료정신의학. 22(3), 163-172.
19. 이한준. (2014).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삼육대학교 대학원.
 20. 이현주. (2017).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군집에 따른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등의 융합적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4), 67-77.
 21. 이혜란. (2019).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학생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다수준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2. 임동훈. (2018).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소진이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충남: 호서대학교 대학원.
 23. 전인희, 조주연. (2016).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 6(1), 49-60.
 24. 추병완. (2015).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도덕 교사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37, 51-74.
 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9).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서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 한선영. (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7. Ying LH, Wang YL, Lin CD, Chen CH. (2016). Trait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TG and adolescent academic burnout in a post-disaster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0, 108-112.